

찬 송 찬송가 559장(사철에 봄바람 불어 있고) 다 같 이

1.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집 즐거운 동산이라
 2.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3.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 [후렴]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추모와 나눔 연 장 자

믿음의 선조들의 살아생전의 모습을 가족과 함께 이야기 해 봅니다. 연장자께서 믿음의 선조의 행적이나 유훈 등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본받을 신앙의 면모에 대해서 두세 분이 나누어 주시고 어른을 공경하고 그 정신을 이어받는 삶에 대해서 권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으로서의 유대감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덕담들을 주고받는 시간을 가져 주셔도 좋습니다.

* 이때 선조를 기억할 수 있는 비디오/오디오 테잎이나 사진 등을 함께 보아도 좋습니다.

합심 기도 다 같 이

믿음의 선조들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반성하며 결단합니다.

* 합심기도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 생략하셔도 됩니다.

주의 기도 다 같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 가족과 함께 😊

- 예배 후 어른들께 세배하고, 음식을 나누며 교제의 시간을 갖습니다.
- 명절을 맞아 가족에게 바라는 것, 새해의 다짐을 나눠보세요.
- 모처럼 다함께 모인 가족이 가족 기념사진을 찍어 보세요.



믿음의 가족이 함께 드리는

설날 가정예배

설날 가정예배는 ❶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❷ 돌아가신 분들을 추모하고 그분의 생전의 삶과 신앙을 생각하며 ❸ 유족들 간의 위로와 친교를 통해 신앙을 더욱 돈독히 하는 계기를 삼고자 ❹ 민족의 명절인 설날에 가족이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입니다.

1. 예배는 다음과 같이 준비합니다.

- 1) 향이나 촛불은 켜지 않고 음식상도 미리 차려놓지 않습니다.
- 2) 선조의 삶과 신앙을 기억할 수 있는 물건들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 3) 가족이 한 상에 함께 둘러앉으며, 가족이 많으면 인도자 앞에 탁자를 준비합니다.

2. 추도 예배 시 다음과 같은 일은 삼가 하여 주십시오.

- ➡ 선조를 위한 제사상을 차리는 일, 선조들에게 절을 하는 일, 선조들의 명복을 비는 일
- ※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께 예배드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예배의 부름 신명기 11장 11-15절 인 도 자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올 한해 우리가정이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해 우리의 가정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복을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한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 송 찬송가 550장(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다 같 이

1.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쳐오네
2.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3.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4.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이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 같 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온가족 기도문 말 은 이

인도 :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 주신 은혜의 하나님!

가족 : 우리에게 민족의 큰 명절 설을 통해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인도 : 지난 한 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가족 :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소서.

인도 : 저희 온 가족이 하나님 안에 있으니 은혜요 복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가족 : 우리 가정이 더욱 믿음위에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 : 새해에는 더욱 기도하고, 사랑하고, 우애가 넘치는 가정으로 세워주셔서

가족 :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게 하옵소서.

다같이 : 올해 잘되고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봉독 시편 37편 3-6절 인 도 자

3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4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5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6 네 의를 빛 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 같이 하시리로다.

말 씀 새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인 도 자

오늘은 우리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날입니다. 다사다난했던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새해 하나님이 우리가정에 부어주실 축복을 기대하며 첫 새해를 기도와 말씀으로 세워나가는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새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새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해보고 승리의 삶을 결단합니다.

첫째, 여호와를 의뢰하라. (3절)

하나님이 우리 삶에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새해 만나는 모든 일들을 내 힘으로 하려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고 의뢰하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그분이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시고 성실함으로 우리를 돌보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가정이 이렇게 예배하며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것도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만을 의뢰하며 믿음을 지키신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는 자로써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여호와를 기뻐하라. (4절)

오늘 본문 4절에서는 오직 여호와를 기뻐할 때 그 여호와가 우리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준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소원을 이루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그것은 결국 3절의 권면처럼 온전히 여호와를 신뢰하고 의뢰할 때 가능해 집니다. 그리고 내 삶의 중심에 그분을 모셔드릴 때 상황이나, 환경이 어떠하든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올 한해 우리 가정과 삶에 늘 여호와를 기뻐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5절)

하나님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삶이란 결국 나의 인생 전부를 그분께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너의 길”이란 인생 전체 여정뿐만이 아니라 삶의 계획, 목표, 방법 모두를 포함하는 말로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때 신실하신 여호와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6절 본문입니다. 6절에서 그분은 우리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우리의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제 우리도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여 먼저 이 약속의 말씀을 받고 각자 처해진 환경과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를 기뻐하며, 그분께 우리 삶 전체를 맡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믿음의 선한 싸움을 승리하는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